

뉴욕 심장부 K팝으로 요동...美 관객 5천명 '한국어 떼창'

브레이브걸스·알렉사, 센트럴파크서 열린 '코리아 가요제' 출연
에스파 같은 장소에서 열린 'GMA 서머 콘서트 시리즈'서 공연

'문화의 중심'으로 통하는 미국 뉴욕 심장부가 한국 대중음악으로 요동치고 있다.

12일 대중음악계에 따르면, 브레이브걸스·알렉사·골든차일드 등 K팝 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현지 음악 축제 '서머 스테이지'의 하나로 열린 '코리아 가요제(KOREA GAYOJE)'에 출연했다. 뉴욕시가 센트럴파크에서 매년 여는 여름 축제. 올해엔 뉴욕시공원재단과 함께 뉴욕한국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주관했는데 뉴욕에 5000여명이 운집했고 '한국어 떼창'이 난무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브레이브걸스가 일으킨 '롤링' 역주행 바람이 뉴욕에도 부는 것을 확인했다. 해외 K팝 팬들이 '롤링' 춤을 자연스레 따라 추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지난 5월 미국 최대 규모 경연 프로그램 NBC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American Song Contest, 이하 ASC)에서 '원더랜드'로 우승하며 인지도를 끌어 올린 미국 국적의

K팝 가수 알렉사 무대도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해외에서 주목 받는 K팝 보이그룹 '골든차일드'에 대한 관객의 열기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브레이브걸스와 골든차일드는 미국에서 투어를 돌고 있는 중이다.

이 음악 축제에 앞서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선 이미 K팝 한국어 떼창이 울려 퍼졌다. 차세대 K팝 걸그룹 '에스파(aespa)'가 지난 8일(현지시간) 이 곳에서 열린 미국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 2022 서머 콘서트 시리즈'(Good Morning America-GMA) 2022 오프닝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에스파는 이 시리즈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출연했다.

에스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현장을 찾은 현지 팬들은 에스파를 보기 위해 이른 오전부터 줄을 서는 것은 물론, 에스파의 이름을 적은 플래카드를 흔들며 뜨거운 환호와 합성을 보내고 한국어 가사 등을 떼창으로 따라 부르는 등 열렬한 응원으로 에스파의 글로벌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고 전했다.

K팝 아이돌 그룹에 이어 K-인디 밴드들도 뉴욕에 진출한다. 밴드 '안녕바다'와 그룹 사운드 '잔나비'는 오는 27일 한국문화원과 뉴욕 대표 문화예술 공연장 링컨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K인디 뮤직 나이트'에 출연한다.

작년에 '포크록 대부' 한대수가 링컨센터에서 공연을 한 적은 있지만, 뉴욕에 상주하는 솔로뮤지션이라 안녕바다와 잔나비가 링컨센터 한국밴드 첫 공연의 주인공들이 됐다.

링컨센터 댐포시 파크에서 펼쳐질 이번 'K인디 뮤직 나이트'는 링컨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한국 인디음악 초청 공연이다. 링컨센터 주최행사인 '서머 포 더 시티(Summer for the City)'의 공식 프로그램 중 하나다.

'클래식음악 성지'로 통하는 뉴욕 링컨센터에 그간 공연한 한국 음악은 클래식과 재즈 그리고 국악 등에 집중돼왔다.



2019년부터 K팝이 조금씩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해 링컨센터가 'K 팩터: K팝에 대한 음악적 탐색'을 열면서 엑소, 레드벨벳 소속사 SM을 초대했다.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대중음악 연대기를 클래식으로 재해석했는데, SM이 세트리스트 선정과 편곡 등 프로그램 구성에 함께했다.

작년에는 한인 DJ 겸 프로듀서인 감마 바

이브가 위주로 된 'K팝 디스코 퍼버(K-Pop Disco Fever)'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K팝의 주축 중 하나로 떠오른 K-댄스도 뉴욕에서 주목 받고 있다. JTBC '플라이 투 더 댄스'를 통해 댄스 '추자(CHUJA)' 멤버들이 리아킴, 리브란, 아이키, 에이미, 리정, 하리무이 뉴욕에서 마지막 버스킹 공연에 나선 모습이 최근 전파를 타기도 했다.

김희선, '블랙의 신부' 내일 넷플릭스 공개



배우 김희선이 '블랙의 신부' 출연 계기를 밝혔다.

김희선은 13일 서울 장충동 크레스트72에서 열린 넷플릭스 드라마 '블랙의 신부' 제작발표회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결혼정보회사가 있다"며 "사실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게 좀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은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를 소재로 해 재미있었다.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장르는 처음이라고 하더라. 세계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넷

플릭스 한국 시리즈에 새로운 장르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며 "한국의 이런 문화가 퍼져 전 세계에 비슷한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이 드라마는 사랑이 아닌 조건을 거래하는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렉스' 이야기다. 결혼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욕망과 그 안에 도사린 복수를 담는다. '서혜승'(김희선)은 남편의 불륜과 죽음으로 인생이 산산조각난다. 렉스에서 내연녀 '진유희'(정유진)와 만나고, 복수하기 위해 2조 자산가 '이형주'(이현욱)와 결혼을 꿈꾼다.

김희선은 "사실 혜승은 내 성격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번엔 24번째 재발견일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혜승은 남편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후 우연히 유희를 마주한다. 이 악물고 남편의 억울함을 복수 하려고 한다. 난 '사이다' 같은 통쾌한 복수를 빨리 하고 싶었다. 너무 답답했는데, 혜승이 차근차근 보여주는 복수가 관전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나쁜 녀석들'(2014) 김정민 PD와 '장미의 전쟁'(2011) 이근영 작가가 만들었다. 김 PD는 "결혼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완성이라면, 또 누군가에게는 신분상승, 재력과 권력 유지 수단이다.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렉스를 찾는 이들은 후자"라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결혼정보회사'라는 색다른 소재가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15일 공개.

'음원 강자' 지코, 2년 만에 컴백...오는 27일

'음원 강자'로 통하는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30·ZICO·우지호)가 2년 만에 컴백한다.

13일 소속사 KOZ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코가 오는 27일 미니 4집 '그로운 애스 키드(Grown Ass Kid)'를 발매한다. 2020년 7월 발매한 미니 3집 '랜덤 박스(RANDOM BOX)' 이후 처음이다. 대세 복무를 마친 이후 활동 재개의 신호탄이다.

2011년 블라비로 데뷔한 지코는 그룹 활동 외에도 솔로 가수, 프로듀서로 활약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지난 2018년 전 소속사를 나와 KOZ를 설립하고 대표가 됐다. KOZ는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인수됐다.

지코는 음원차트 강자로도 통한다. 그간 '사랑', '남겨짐에 대해', '아무노래', '서머 하이트' 등의 히트곡을 냈다. 특히 '아무노래'는 멜론 일간 차트에서 52회 1위를 기록했고, 방송 출연 없이 음악방송 통산 10관왕에 올랐다. 이 곡은 2020년 연간 가온 디지털 차트, 다운로드



차트, 스트리밍 차트에서 모두 1위를 거머쥐었다.

트와이스, 9개월 만에 새 앨범...8월 미니 11집 발매

3세대 라이벌로 통하는 블랙핑크와 비슷한 시기 컴백

K팝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가 9개월 만에 새 앨범을 낸다.

13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오는 8월26일 오후 1시(미국 동부 시간 기준 0시)에 미니 11집 '비트윈 원앤투(BETWEEN 1&2)'를 발매한다.

이번 컴백은 지난해 11월 정규 3집 '포뮬러 오브 러브: O+T=3(Formula of Love: O+T=3)' 이후 처음이다. 트와이스는 이 음반으로 '빌보드 200' 3위를 차지했다. 해당 차트에서 '블랙핑크'(2위)에 이어 K팝 걸그룹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또 빌보드 '아티스트 100' 부문에서도 10위에 올라 막강한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최근엔 내연이 트와이스 첫 솔로 주자로 나서 미니 1집 '아이엔 나연(IM NAYEON)'으로 '빌보드 200' 7위에 올라 역대 K팝 솔로 아티

스트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만큼, 이번 음반에 시너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트와이스 아홉 멤버가 최근 JYP와 전원 재계약을 맺은 만큼 행보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트와이스는 2015년 10월 데뷔 후 각종 가요 시상식 대상 수상, 한일 음반 누적 판매량 1000만 장 돌파, 해외 아티스트 사상 데뷔 후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전 세계 걸그룹 중 최다인 20편의 1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 보유, K팝 걸그룹 최초 북미 스타디움 공연 등의 기록을 쓰며 K팝 간판 걸그룹 중 한팀이 됐다.

이번 트와이스의 컴백 예고로 올해 8월은 유례없는 K팝 간판 걸그룹 대전이 성사됐다. 트와이스와 함께 3세대 K팝 간판 걸그룹을 대표하는 블랙핑크가 1년10개월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다.



K팝 2세대 대표 걸그룹인 소녀시대도 5년 만에 완전체로 앨범을 낸다.

'오징어 게임' 또 역사 썼다...에미 13개 부문 후보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최고 권위 TV 시상식인 에미(EMMY) 시상식에서 13개 부문 14차례 후보에 올랐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작품이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아시아 국적을 가진 배우가 연기상 후보에 오른 것도 최하다.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 학아카데미(The Academy of Television Arts and

제74회 에미시상식 13개 부문 14차례 지명

Sciences·ATAS)는 12일(현지 시각) 제74회 에미 시상식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오징어 게임'은 작품·연출·남우주연·여우조연·남우조연·여우단역·미술·촬영·편집·음악·특수효과·스틸트·극본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남우주연 부문에는 배우 이정재가, 여우조연 부문에는 정호연이, 남우조연 부문에는 박해수와 오영수가, 여우단역 부문에는 이유미가 후보 지명됐다. 에미 시상식 74년 역사상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드라마 후보에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에미 시상식은 영화로 치면 아카데미시상식에 준하는 미국 최고 권위 시상식이다.

이정재는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이름을 올리게 돼 너무나도 영광"이라며 "계속해 '오징어 게임'에 많은 사랑을 주는 전 세계 팬들, 그리고

함께 땀 흘렸던 '오징어 게임' 팀과 이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연의 소속사는 "방송계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인 '에미상'에 첫 연기 데뷔작이자, 한국 최초로 후보에 오르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했다.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후보 지명을 계기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가 서로의 콘텐츠를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릴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시상식에서 최다 후보 지명작은 25차례 후보에 오른 HBO 드라마 시리즈 '석션 션'이었다. 애플TV+ 드라마 시리즈 '테드 라소'가 20회로 뒤를 이었다. 74회 에미 시상식은 오는 9월12일에 열릴 예정이다. 행사는 NBC를 통해 생중계 된다.

코요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여름 컴백

혼성그룹 코요태(김종민·백가흠·신지)가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13일 제이지스타는 "최근 코요태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사는 코요태 새 앨범, 콘서트 등 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요태는 여름 시즌을 맞이해 곧바로 새 앨범 발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

다.

코요태는 지난 1998년 정규 1집 '코요태(高耀太)'로 데뷔해 지금까지 해체 없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장수 혼성그룹이다. '순정' '만남' '실연' '파란' '비몽'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싱글 '표정'을 발매했다.

